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997호 | 2015년 5월21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 www.nars.go.kr

2015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 성과 및 향후 과제

김진수*·김경민**

1. 들어가며

‘2015 제7차 세계물포럼(7th World Water Forum 2015)’이 지난 2015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대구와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¹⁾가 3년마다 개최하는 물과 관련된 지구촌 최대의 행사다.

세계물포럼은 물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을 도출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물 EXPO 등도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세계물포럼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되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개최 성과와 향후과제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계물포럼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세계물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세계물위원회는 1996년 설립되어, 국제기구, 각국 정부, 학계, 시민단체, 기업체 등 전 세계 60여개 국가의 342개 물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기구이다.

2. 제7차 세계물포럼 개요

세계물포럼은 1997년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물, 생활과 환경을 위한 전망(Vision for Water, Life and the Environment)’이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되었다. 이후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터키, 프랑스를 거쳐 2015년에 제7차 세계물포럼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다.

제7차 세계물포럼의 프로그램은 크게 주제별, 정치적, 지역별, 과학기술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제별 과정’은 세계물포럼의 핵심과정으로, 국내외 다양한 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 재해, 녹색성장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정치적 과정’에서는 국가정상,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장 등이 모여 정책의 수립·입법·집행을 통한 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역별 과정’에서는 전 세계의 지역·유역·국가별로 당면한 물 문제 현안을 논의하였다. ‘과학기술 과정’은 이번 세계물포럼에서 신설된 과정으로, 물 문제 해결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였다([표 1] 참조).

*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공학박사, 788-4603, jinsookim@nars.go.kr

**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공학박사, 788-4732, kmkim@nars.go.kr

[표 1] 세계물포럼 주요 프로그램

구분	구성
주제별 과정	16개 대주제에 따른 130여개 세션
정치적 과정	장관급 과정(라운드 테이블 8개), 국회의원 과정(물입법 헬프데스크), 지방정부 과정 4개 등 총 30여개 세션
지역별 과정	7개 지역별 총 50여개 세션
과학기술 과정	5개 대주제에 따른 38개 세션
시민포럼	국내외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물 관련 강연, 토론, 전시, 체험, 공연, 문화예술 이벤트 등 70여개 세션
동시행사	국제기구, NGO, 대학, 기업 등이 토론회, 워크숍, 세미나 등 100여개 행사 진행
Expo & Fair	·총 39개국 294개 기관 참여 ·910여개 부스 운영
특별 프로 그램	·워터 쇼케이스(Water Showcase) ·월드 워터 챌린지(World Water Challenge) ·대구·경북 워터 프라이즈 ·CEO 이노베이션 패널

자료: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3. 제7차 세계물포럼의 주요 성과

(1)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 개최

제7차 세계물포럼은 국가 정상급 인사 9명, 장·차관 78명, 국회의원 71명의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국제기구, 기업, 학계, NGO, 시민, 언론인 등 168개국에서 총 4만 6천여 명(세계물포럼 행사 및 프로그램 등록 기준)이 참석하였다.²⁾ 또한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라는 주제 아래 약 400여개의 세션이 구성되어, 방문객 수와 프로그램 구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2) 세계물포럼은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을 전후하여 약 1주일간 개최되는데, 실제로는 2년 이상 기간 동안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사전회의 및 행사가 개최된다.

(2) 정치적 과정 선언문

이번 세계물포럼 ‘정치적 과정’을 통해 진행된 장관·국회의원·지방정부의 각 과정에서 3건의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127개 국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장·차관급 인사 106명이 참여한 장관급 과정에서 채택된 각료 선언문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³⁾에 ‘물과 위생’을 단독 목표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신(新)기후협상 타결⁴⁾, 물 관련 재난 예방·관리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한 국경을 초월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하여 협의했다.⁵⁾

6개국 국회의장과 4개국 국회부의장 등을 포함한 27개국 71명의 국내외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물안보(water security)⁶⁾ 확보를 위한 법체제 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또한, 입법과 예산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물 거버넌스(water governance), 물인권(the right to water) 등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종료되는 UN의 새천년개발 목표를 잇는 17개의 개발목표를 말한다.

4)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물 문제 해결이 중심이 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을 포함한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5) 우리 정부 주도하에 각국 정부대표단, 물 관련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표 등이 약 1년간의 교섭을 거쳐 확정하였다.

6) 물안보란 ‘기후·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발전 등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필요한 만큼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UN-Water, 2013).

26개국 95개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채택한 지방정부 선언문은 실제 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이행방안이 명시되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지방정부 단위의 물관리 정책, 물관리 사각지대 해소, 물산업 진흥을 통한 물관리·생산능력의 증대,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전략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가 수자원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 정부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물관리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3) 해외 정부와의 물산업 협력체계 구축

제7차 세계물포럼의 물 EXPO에는 국내 112개 기업·단체를 포함한 총 39개국 294개 기관에서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해수담수화, ICT를 이용한 물관리 기술 등을 홍보하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물관리 주요 정책을 교류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13개국 정부와 국내 물 관련 기업 간의 일대일 면담이 진행되었다.

물 EXPO와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 물관리 기관과 해외 정부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세계물포럼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물 관련 기관은 38개국과 총 2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⁷⁾, 46회의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7) 네덜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OECD, UAE(5월 예정) 등의 물관리 기관과 공동연구 및 제3국 진출에 관한 MOU 등을 체결하였다.

4. 세계물포럼 개최를 통한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1)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이번 세계물포럼에서 마련된 외국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⁸⁾ 다만, 국내 물산업의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별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시장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해외건설협회, 한국물포럼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물산업 진출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시장 등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해외투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4대강 등의 하천관리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중·장기 해외시장 진출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8)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5천억 달러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조선 시장보다 2배 이상 크고(2010년 기준), 2018년 약 7천억 달러, 2025년에는 약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GWI, 『Global Water Market 2011』, 2010).

(2) 물관리 정책의 정비

이번 세계물포럼 물 EXPO와 정치적 과정 등에서 소개된 해외의 물관리 주요 정책 중에서도 ‘물 거버넌스’ 구축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법에 따라 다수의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물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예산중복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물관리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수량·수질·재해 등에 대한 통합물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와 물복지(water welfare)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⁹⁾

(3)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물관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급격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 물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물관리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주요 정책 및 기술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7차 세계물포럼 정치적 과정의 주요 선언문 체결 과정 등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물 관련 기간 간의 교섭을 우리 정부가 주도함으로써, 물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

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물포럼 개최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5. 나가며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약 7년여의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 오랜 기간 준비하여 개최한 만큼 물산업 진흥, 물 거버넌스의 구축,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등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물 부족, 수질오염 등으로 21세기를 선도할 블루 골드(Blue Gold)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계 물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산업 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¹⁰⁾을 비롯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전략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핵심가치인 ‘실행(Implement)’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민 개개인의 물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물절약을 얼마만큼 ‘실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9) 김진수·김경민, 「국내 물관리 현황 및 물기본법 제정 방향」, 『이슈와 논점』 제924호, 2014.

10) 환경부 주체로 대구광역시 달성구 구지면에 물 관련 연구소, 기업 등을 집약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65만m² 부지에 3,5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